

# 언어 영역

##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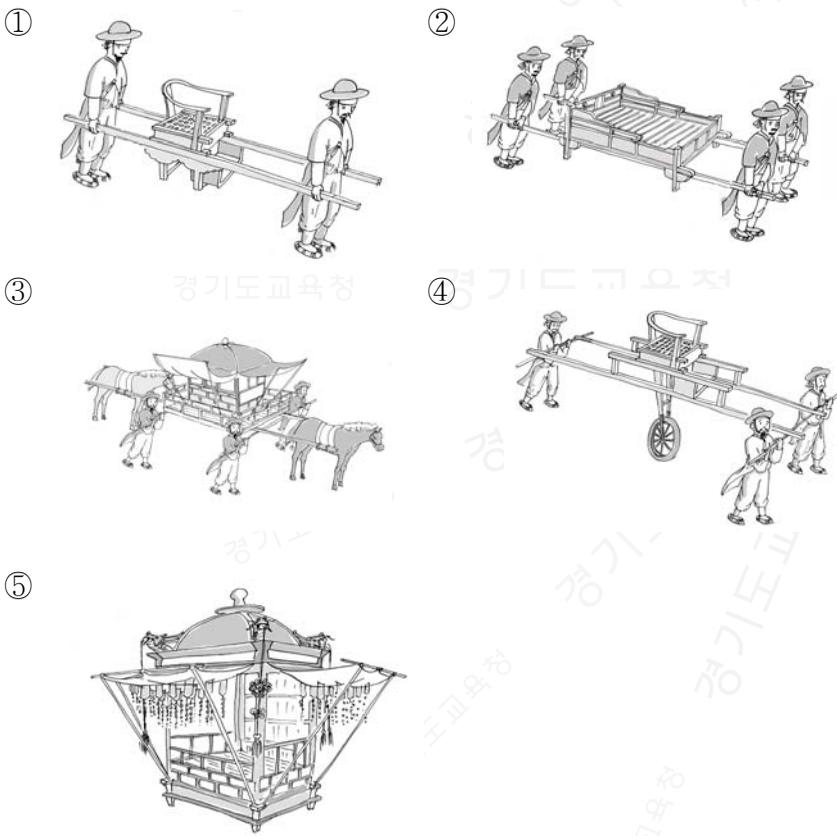
3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 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대화의 마지막에 딸이 말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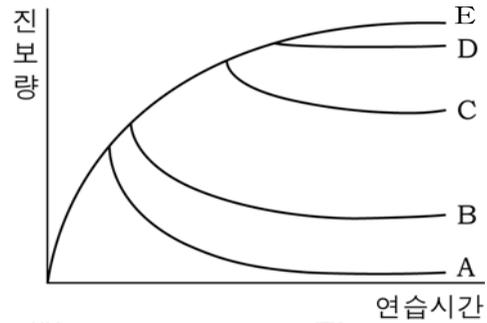


2.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주어진 기회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②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 ③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④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 ⑤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3. (물음) 강연의 취지를 살린 학습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겠어.
- ② 학습량에 따라 공부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겠어.
- ③ 수업 직후 바로 복습을 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공부해야겠어.
- ④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길러야겠어.
- ⑤ 새로운 학습 내용을 첨가하여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겠어.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대담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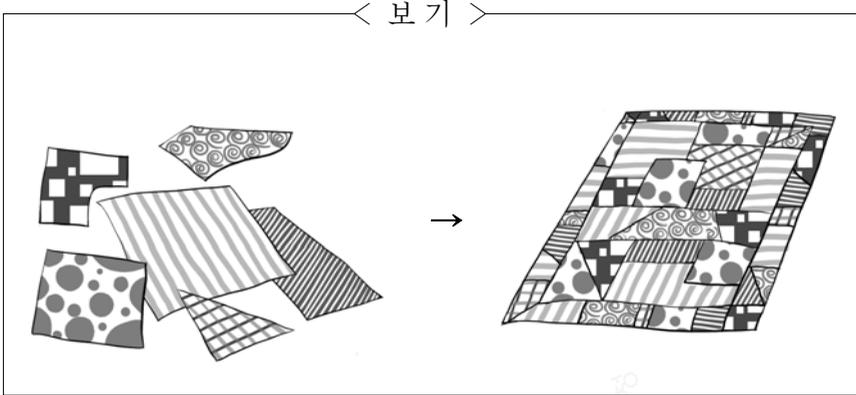
- ① 국민참여재판의 개념
- ②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
- ③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절차
- ④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효과
- ⑤ 국민참여재판 시행상의 문제

5.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례를 들어 대담자의 의견을 보완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표현으로 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의문을 제기하며 타당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 ④ 대담자의 의견을 정리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 ⑤ 대담자와 상반된 또 다른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활용하여 글을 쓰고자 할 때,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해석	연상 내용
자투리 천이 활용됨	→ 사소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삶 ... ㉠
버려진 천 조각이 이 불보가 됨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삶 ..... ㉡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모임	→ 각자의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삶 ... ㉢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됨	→ 유연한 태도로 친분 관계를 넓히는 삶 ..... ㉣
여러 천 조각이 실로 엮여 하나가 됨	→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삶 .....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개요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주제 : 사이버 박물관 운영의 개선 방안

I. 현황  
- 낮은 이용도

II. 문제점

1. 관람객의 이용 실태 ..... ㉠
2. 가상 체험 시스템 구축 미흡
3.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부족 ..... ㉡
4.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III. 개선 방안

1. 원활한 가상 체험 시스템 구축
2. 저작권 관리 기술 개발 ..... ㉢
3. 미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 마련 ..... ㉣

IV. 전망 ..... ㉤

- ① ㉠은 내용을 고려하여 '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② ㉡을 고려해 'III'의 하위 항목으로 '실제 박물관을 대체하는 콘텐츠 마련'을 추가한다.  
 ③ ㉢은 '저작권 관리 기술 개발 및 이용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으로 보완한다.  
 ④ ㉣은 상위 항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⑤ ㉤은 '새로운 사이버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발전 기대'로 구체화한다.

8. '기아 문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모은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생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p>㉠. 세계 기아 인구 현황과 세계 식량생산정상회의(WFS)의 목표</p>	<p>㉡. 기아의 유형</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장기적 기아</th> <th>일시적 기아</th> </tr> </thead> <tbody> <tr> <td>원인</td> <td>빈곤</td> <td>자연 재해, 무장 소요</td> </tr> <tr> <td>관심도</td> <td>관심에서 비껴나 있음</td> <td>세계적인 관심과 지원</td> </tr> <tr> <td>비율</td> <td>약 90%</td> <td>약 10%</td> </tr> </tbody> </table>		장기적 기아	일시적 기아	원인	빈곤	자연 재해, 무장 소요	관심도	관심에서 비껴나 있음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	비율	약 90%	약 10%
	장기적 기아	일시적 기아											
원인	빈곤	자연 재해, 무장 소요											
관심도	관심에서 비껴나 있음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											
비율	약 90%	약 10%											
<p>㉢. 2007년 현재,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필수 소비량을 훨씬 웃돈다. 그와 함께 영양 과다 인구도 13억 명에 이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신문 -</p>	<p>㉣. ○○국에서는 경제난이 심각해 3명 중 1명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현상이 학습 능력 저하 및 학습 기회 손실로 이어져 또다시 가난한 삶을 살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점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 &lt;기아 관련 보고서&gt; 중 -</p>												

자료	내용
㉠+㉡	→ 기아 인구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기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
㉠+㉢	→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필수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된 식량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식량 생산량과 필수 소비량의 균형을 맞춰 일시적 기아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	→ 장기적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	→ 세계의 잉여식량을 굶주림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빈곤층을 구제하여야 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9.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 보 기 >
- 조건
  - '새'와 관련지을 것
  - 역설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

- ① 사람들은 상대방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는 수 천 마리가 내려앉을 때도 부딪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배려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②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새는 뼈가 비어 있어서 하늘을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③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장점을 강화시킵니다. 내안의 약한 것으로 인해 강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 ④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 타인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철새는 때가 되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할지 묻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자신의 내부의 숲에 숨어 있습니다.
- ⑤ 자신과는 다른 타인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새는 하늘이든 바다든 금을 긋지 않고 어디든 날아갑니다. 타인에 대해 금을 긋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실현시킵니다.

10.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몇 년 전 선생님께서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하시며 손수 대금을 연주해 주셨지요. ㉠ 그 소리는 대중가요나 서양 음악에 익숙해 있던 저희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가락인데도 오래 사귄 친구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 것이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대나무가 불어 내는 한숨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저를 간질이는 듯하기도 했고, 푸른 날을 번뜩이는 ㉢ 대잎에 그만 손가락을 베일 것 같기도 한 생생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락은 자연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물소리와 어울려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라디오에서 다시 그 대금 연주를 들었습니다. 예전의 느낌이 ㉣ 되풀이되며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 주셨던 선생님이 무척 그리워졌습니다. ㉤ 지금까지 저는 선생님께서 저희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 편의 아름다운 음악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에 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 ① ㉠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어색하므로 '저희에게는'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조사의 사용이 바르지 못하므로 '것처럼'으로 고쳐야겠어.
- ③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대잎'으로 고쳐야겠어.
- ④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재발되며'로 바꿔야겠어.
- ⑤ ㉤은 글 전체의 흐름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11. ㉠ ~ ㉤ 중, <보기>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은?

- 발다<sup>1</sup> ○ 액체가 바싹 줄아서 말라붙다. .... ㉠
- 근심, 걱정 따위로 몹시 안타깝고 조마조마해지다. .... ㉡
- 발다<sup>2</sup> ○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나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 .... ㉢
- 발다<sup>3</sup> ○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 .... ㉣
- 발다<sup>4</sup> ○ 지나치게 아껴 인색하다. .... ㉤

< 보 기 >

초여름 가뭄으로 못자리에 퍼 올릴 물웅덩이도 점점 **발아** 들어가고 있었다. 모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애가 **발고** 간이 타는 노릇이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김 씨는 천장이 **발은** 침침한 방을 나와 다른 날보다 이르게 논으로 나갔다. 유례없이 풍년이 들었던 작년을 생각하면 술을 **발을** 형편조차 되지 못할 올해가 더욱 한심스러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니다/는다'의 '쓰임 환경'을 탐구하려고 할 때, ㉠ ~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언어 자료	쓰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던진다, 온다, 잔다</li> <li>• 몬다, 운다, 만든다</li> <li>• 웃으신다, 막으신다, 감으신다</li> <li>•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다</li> <li>• (㉠) 뒤</li> <li>•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li> <li>• (㉡) 뒤</li> <li>○ -는다</li> <li>• 'ㄹ' 받침을 제외한 (㉢) 뒤</li> </ul>

- |   |             |         |             |
|---|-------------|---------|-------------|
|   | ㉠           | ㉡       | ㉢           |
| ① |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어미 '으시'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 ②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피동사     |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 ③ | 타동사         | 어미 '으시' | 피동사         |
| ④ |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타동사     | 피동사         |
| ⑤ | 타동사         | 피동사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운동주, 「또 다른 고향」 -

(나)

감나무에 감꽃이 지고 나더니  
아프게도 그 자리에 열매가 맺네  
열매는 한창 쭉쭉 자라고  
그것이 처음에는 눈이 부신  
반짝이는 광택 속  
선연한 푸른 빛에서  
조금씩 변하더니 어느새  
붉은 홍시로까지 오게 되었더니라.

가만히 보면  
한자리에 매달린 채  
자기 모습만을  
불과 일 년이지만 하늘 속에  
열심히 비추는 것을 보고, 글썽,

말 못하는 식물<sup>1</sup>이 저런데

똑똑한 채 잘도 떠들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자기 모습을 남기는가 생각해 보니  
허무라는 심연밖에 없더니라.

아, 가을!

- 박재삼, 「홍시(紅柿)를 보며」 -

(다)

나는 일손을 멈추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 살아있는 보람이란 이것뿐이라고 -  
하루살이의 광무(狂舞)여

하루살이는 지금 나의 일을 방해한다  
-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생각한다 -  
하루살이의 유희(遊戱)여

너의 모습과 너의 몸짓은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우냐  
소리 없이 기고 소리 없이 날으다가  
되돌아오고 되돌아가는 무수한 하루살이  
- 그러나 나의 머리 위의 천장에서는 너의 소리가 들린다 -  
하루살이의 반복(反覆)\*이여

불 옆으로 모여드는 하루살이여

벽을 사랑하는 하루살이여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에게로

모여드는 모여드는 하루살이

- 나의 시각(視覺)을 쉬이게 하라 -

하루살이의 황홀(恍惚)이여

- 김수영, 「하루살이」 -

\* 반복 : 본래의 상태로 되돌림. 언행 등을 자꾸 고침.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②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부정적 사회 현실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14. 지조 높은 개와 말 못하는 식물<sup>1</sup>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를 인식하게 한다.
- ②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 ③ 외로운 심정을 심화시킨다.
- ④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대상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1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프게도’는 성장의 어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푸른 빛’과 ‘붉은 홍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성숙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느새’는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다음 행의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
- ④ ‘자기 모습’을 ‘열심히 비추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는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 ⑤ ‘아, 가을!’에는 탈속적 세계를 동경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16. <보기>는 (다)를 감상하면서 생긴 의문점과 그에 대한 토의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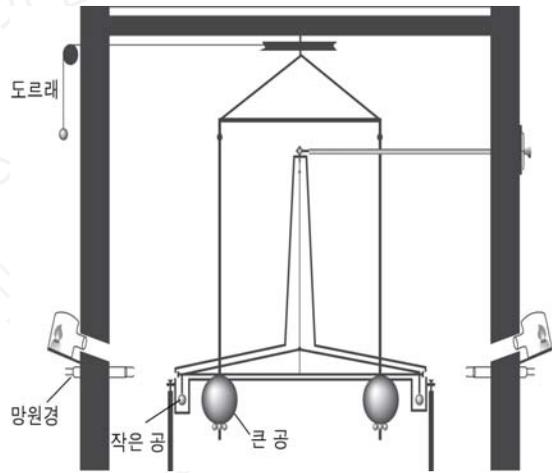
< 보기 >	
의문점	토의 내용
하루살이의 움직임에 대한 시어를 ‘광무 → 유희 → 반복 → 황홀’로 달리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시어의 변화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 ㉠
2연에서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 1연에서 ‘일손을 멈추고 무엇을 생각’하던 화자가 3연에서 하루살이의 자연스러움에 감탄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삶이 하루살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 ㉡
3연에서 ‘반복(反復)’과는 다른 ‘반복(反覆)’이라는 한자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 ‘같은 일을 되풀이함’의 뜻을 가진 어휘 대신 ‘본래의 상태로 되돌림, 언행 등을 자꾸 고침’의 뜻을 가진 시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시적자아의 심정을 드러내려는 것 같아. .... ㉢
4연에서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열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연민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 ㉣
이 시의 구성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 같은 형태의 구절이 매 연마다 반복되며, 대상에 관한 중요한 시어로 각 연을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영국의 과학자 캐번디시는 기구의 정밀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데 설 새 없이 몰두했다. 그는 수많은 것들의 무게를 재고 측량했으며 그것도 매우 정확하게 수행했다. 그가 재 물체 중에는 지구도 포함된다. 지구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했던 ‘캐번디시 실험’은 그의 역작이다. 그 실험은 광적으로 정밀성을 추구하는 그에게도 최고로 까다로운 과제였다.

그는 처음에는 정확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다가 이 실험에 도달했다. 뉴턴에 따르면 물체들의 상대적 인력을 알면 그들의 상대 밀도를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지구의 평균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된 한 원정대는 거대한 산과 물의 상대적 인력을 측정함으로써 지구의 평균 밀도가, 밀도가 1인 물의 4.5배임을 계산해 냈다. 하지만 이 실험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 캐번디시는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지구의 밀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잘 알려진 물체들을 동원해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캐번디시는 그의 동료와 함께, 지름 20cm의 큰 공을 지름 5cm의 작은 공에 서서히 접근시킴으로써 작은 공이 큰 공의 인력에 의해 끌려오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고안해 냈다.



<그림> 캐번디시가 보완한 실험 도구

하지만 캐번디시는 이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구를 <그림>과 같이 보완했다. 우선 공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매우 작은 크기일 것이므로, 큰 공들을 지름 30cm에 무게 158kg의 공으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실험자의 체온으로 인해 미세한 온도 변화가 생겨 오차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기구 전체를 밀폐된 방에다 가두었다. 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을 닫은 채로 두었다. 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공들을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르래를 설치했다. 역기처럼 막대기 끝에 달린 작은 공 두 개에는 정밀한 자를 부착하였으며, 벽에는 망원경을 달아서 방 밖에서 지침을 관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명기에서 나오는 열로 인한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방 안의 조명을 없앴고, 그 대신 망원경 위마다 조명을 달아 망원경 렌즈에서 나온 빛이 작은 유리창을 넘어 지침에 가 닿도록 했다.

작은 공의 미세한 이동을 측정하기 위해 몇 시간가량 눈을 떴지 않고 지켜보는 어려움 끝에, 캐번디시는 지구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5.84배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A] 처음에 캐번디시는 지구의 밀도, 실질적으로 무게를 재려고 시도한 것이지만, 뉴턴의 중력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한 현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캐번디시의 실험이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몰라서는 안 될 값인 'G', 즉 '만유인력 상수'의 값을 결정하는 실험으로도 완벽하기 때문이었다.

17. 다음은 '캐번디시'가 실험 과정에서 예상한 문제점과 그 보완 방안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방법
공의 크기가 너무 작아 인력을 측정하기 어려움	→ 큰 공들을 지름 30cm, 무게 158kg 공으로 교체함 ..... ㉠
실험자의 체온으로 인해 실내 온도 변화가 예상됨	→ 실험자의 출입이 차단된 방에서 실험을 실시함 ..... ㉡
기구가 설치된 실험실 밖에서 공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실험실 밖에서 공을 움직일 수 있는 도르래를 설치함 ... ㉢
실험실 조명의 열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실험실 내부의 조명을 없앴 ..... ㉣
어두운 상태에서 공의 지침을 읽을 수 없음	→ 조명이 부착된 망원경을 작은 공의 지침 위에 설치함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과 물의 밀도를 몰라서
- ② 측정값은 지역마다 달라서
- ③ 오차 발생 요인을 차단하지 않아서
- ④ 실험 결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 ⑤ 지구의 크기 측정치에 오류가 있어서

19. [A]와 가장 가까운 사례는?

- ①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직접 제작하여 하늘을 관찰한 결과 지동설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 ② '뢴트겐'은 음극선 실험 도중 진공관에서 나오는 빛을 우연히 발견하고 X-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 ③ '외르스테드'는 전기 실험 도중 도선 주위에 나침반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전기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 ④ '러더포드'는 원자 속의 양 전하 비율을 알기 위한 실험에서 원자의 상당 부분은 비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 ⑤ '알하젠'은 거듭된 연구 끝에 '눈 해부도'를 그렸는데, 이는 후대에 안경 제작의 원리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의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背馳)되는 듯하였다. ㉠ 공부 아닌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저러는 것이 참말 부자 방망이를 맨드는 것인가 보다.'

아내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한다.

또 두어 달이 지나갔다. 남편의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한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이 얼굴을 찌그러뜨렸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 간다.

'무슨 걱정이 있는고?'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 여윈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로 애를 썼다. 곧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 밥상에 맛난 반찬가지를 붙게 하며 또 고음\*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런 보람도 없이 남편은 입맛이 없다 하며 그것을 잘 먹지도 않았었다.

또 몇 달이 지나갔다. 인제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 있다. 걸핏하면 성을 낸다. 입버릇 모양으로 화난다, 화난다 하였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의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쥐이는 것은 이부자락뿐이다.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잃은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스스 떴다. ㉣ 책상 위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흐릿한 의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임도 깨달았다. 흑흑 느끼는 소리가 귀를 울린다.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었다. 불현듯이 몸을 일으켰다. 이윽고 아내의 손은 가볍게 남편의 등을 흔들며 목에 걸리고 나오지 않은 소리로,

"왜 이려고 계세요."

라고 물어 보았다.

"....."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다. 아내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괴어 들려고 할 즈음에, 그것이 따뜻하게 눈물에 젖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 두어 달이 지나갔다.

[A] 처음처럼 다시 출입이 잦아졌다. 구역질이 날 듯한 술냄새 [A]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게 되었다. 그것은 요사이 일이다. 오늘 밤에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초저녁부터 아내는 별별 생각을 다하면서 남편을 고대고대하고 있었다. 지루한 시간을 속히 보내려고 치웠던 일가지를 또 꺼내었다. 그것조차 뜻같이 아니 되었다. 때때로 바늘이 헛되어 움직이었다. 마침내 그것에 찢리고 말았다.

"어데를 가서 이때껏 오시지 않아!"

아내는 이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짜증을 내었다.

...(중략)...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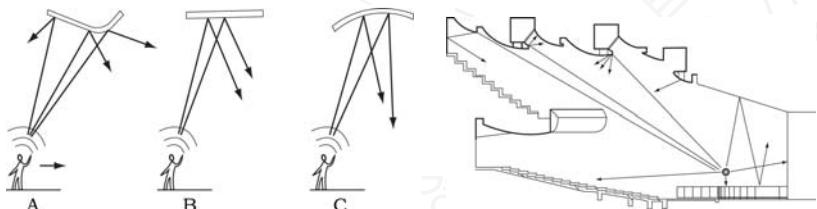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반원형의 야외극장에서는 지금도 무대 위의 소리가 아주 명확하고 깨끗하게 들린다. 그렇게 넓은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이크도 없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 또한 콘서트홀에서 듣는 음악이 웅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공간의 생김새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소리를 기술적으로 배려한 건축 음향 설계에서 그 단서를 알 수 있다.

소리는 물체에 닿으면 일부는 흡수되거나 뒤쪽으로 투과되며 반사된다. 이때 반사되지 않고 부딪힌 물체에 흡수되는 것을 흡음이라 하고, 다른 물체가 가로막고 있어도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뒤로 전달되는 것을 회절이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 야외극장의 비밀은, 음이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는 경사진 돌바닥과 계단형 바닥에 숨겨진 항아리에 있었다. 항아리는 일종의 공명상자로 무대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다른 크기로 묻혀 있었는데 무대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항아리가 매설되어 있었다. 고주파수는 파장이 짧고, 저주파수의 경우 회절이 잘되며 파장이 길고 전달 거리가 더 멀다. 좌석 밑의 항아리는 저주파수음의 공명을 만들어 거리에 따른 음의 감쇠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이다.



<그림 1> 여러 표면의 음파의 반사      <그림 2> 콘서트홀의 단면구조도

반사면을 만나면 소리는 빗처럼 반사된다. <그림 1>은 다양한 반사각에 따른 소리의 방향을 표시한 것이다. A는 반사각이 달라 음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천장이 ㉡ 고르지 않은 경우 '확산 반사'가 일어나 소리의 퍼짐 효과가 좋다. B처럼 천장과 바닥을 평행하게 만들면 소리가 '반복 반사'하면서 울리는 '플러터 에코'가 발생한다. 이는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는 것을 방해한다. C와 같이 오목한 돔 모양으로 천장을 처리하면 반사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집점 반사'가 발생하는데, 음이 모이는 곳 외에는 잘 들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좋은 소리를 효과적으로 들으려면 <그림 2>처럼 다양한 형태의 반사각을 만들어 풍부한 반사음을 유도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음원이 멎은 뒤에도 울림이 남아 있는데, 이를 잔향이라고 한다. 실내에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재가 적을수록, 울림을 형성하는 공간이 클수록, 잔향 시간은 길어져 쿵쿵 울린다. 고주파의 경우 벽, 바닥, 천장에 부딪히면 쉽게 에너지가 손실되어 잔향 시간이 짧은 반면, 음 에너지가 강한 저주파수는 잔향 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잔향은 반사음에 의해 생긴 현상으로 풍부한 울림을 주므로 음악 연주 시는 긴 것이 바람직하지만, 강연의 경우에는 잔향 시간이 너무 길면 명료도가 떨어진다. 이를 적절한 수위로 조절하려면 벽면이나 의자의 재질을 음의 흡수가 잘되는 것으로 마감한다.

결국 건축 음향 설계 기술은 공간의 목적에 따른 공간의 형태 설계와 잔향 설계로 구분되는데 이때 건축물의 모양, 흡음재의 배치, 음원과 거리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2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실험을 통해 과학적 오류를 밝혀내고 있다.
- ② 과학적 근거를 들어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있다.
- ③ 통시적 고찰을 통해 대상의 발전 과정을 진술하고 있다.
- ④ 경험에 의존한 관찰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고 있다.
- ⑤ 사례를 들어 대상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8. <보기>에 ㉠이 반영되었다고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덕궁 인정전

- ① 울퉁불퉁한 표면으로 처리된 '바닥'은 확산 반사의 효과가 있겠군.
- ② 신하들 앞의 '품계석'들은 소리를 집중시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군.
- ③ 돌로 된 '계단'들은 소리를 반사하여 울려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겠군.
- ④ 옆 '담'은 소리를 벽에 반사시켜 다시 안으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겠군.
- ⑤ '처마'는 끝이 들어 올려져 있어 플러터 에코 현상이 발생하기 어렵겠군.

29. [A]를 통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잔향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는 반사음의 효과를 증폭시킬 것이다.
- ② 강의실에서는 울림이 많을수록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릴 것이다.
- ③ 먼 곳에서는 고주파수인 뿡과리소리가 저주파수인 북소리보다 잘 들릴 것이다.
- ④ 흡음재는 소리를 반사하지 않고 흡수해야 하므로 재질이 단단한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⑤ 돌바닥과 높은 천장으로 만들어진 중세 건물은 울림의 효과가 큰 음악 연주에 적합했을 것이다.

30. ㉡와 관련하여 '고르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고르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      [⇒ 균등(均等)하다]
- ② 효과가 고르게 나타난다.      [⇒ 균일(均一)하다]
- ③ 물건을 고르게 배치하다.      [⇒ 평등(平等)하다]
- ④ 사람들을 고르게 대우하다.      [⇒ 동등(同等)하다]
- ⑤ 방바닥이 고르고 단단하다.      [⇒ 평평(平平)하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예방 소임을 맡아 제주에 온 배비장은 어머니와 부인에게 여자에게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방자에게까지 큰소리친다. 그러나 제주 목사의 지시로 기생 애랑이 유혹하자 한눈에 반하고 만다. 그래서 애랑에게 편지를 보낸 후 답장을 받는다.

강호에 병이 들어 덧없이 죽겠더니, 낭자 회답이 반갑도다. 삼경에 기약 두고 해지기만 바라더니 석양이 다 저 간다.

방자 입시(入侍) 보내고 빈 방 안에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다시 의관을 차릴 적에, 망건 위에 탕건 쓰고 그 위에 병거지 올려 쓰고, 철릭 위에 쾌자 입고 허리에는 관대 두르고 활과 화살 주머니를 제법 격식 있게 갖추고 빈방 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 들린 듯이 혼잣말로 두런거리며 습의(習儀)\*하고 하는 말이,

“가만가만 걸어가서 여자 문전에 들어서며 기침 한번을 가만히 하면 그 여인이 김새를 채고 문을 필쩍 열렸다. 걸음을 한번 대학지도로 이리 걸어 들어가 수인사후(修人事後)에 대천명(待天命)이라 하니, 여자에게 한번이되 군례(軍禮)로 보렸다.”

한창 이리 습의할 제, 방자놈이 뜻밖에 문을 필쩍 열며 하는 말이,

“나으리, 무엇하오?”

배비장 깜짝 놀라,

“너 벌써 왔느냐?”

“예, 군례 전에 대령하였소.”

“이놈, 내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하며 방자 앞세운 채로 썩 나서니, 달이 진 산에 까마귀 울고 고기 잡는 불빛이 물에 비친다. 앞개울에 있던 사람은 돌아가고, 춘풍에 학이 운다. 전 기약 맺은 낭자 이 밤중에 어서 가자. 거들거려 갈 제 방자놈 이르는 말이,

“나으리 소견 바이 없소. 밤중에 유부녀 통간 가오면서 비단 옷 입고 저리 하고 가다가는 될 일도 못 될 것이니, 그 의관 다 벗으시오.”

[A] “벗기는 초라하구나.”

“초라커든 가지 마옵시다.”

“애야, 요란히 굴지 마라. 내 벗으마.”

활짝 벗고 알몸으로 서서,

“어떠하니?”

“그것이 원 좋소마는, 누구 보면 한라산 매사냥꾼으로 알겠소. 제주 인물 복색으로 차리시오.”

“제주 인물 복색은 어떤 것이냐?”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평거지\*를 쓰시오.”

“그것은 과히 초라하구나.”

[B] “초라하거든 그만두시오.”

“그러하단 말이로다. 개가죽 아니라, 도야지 가죽이라도 내 입으마.”

하더니, 구록피(狗鹿皮) 두루마기에 노평거지를 쓰고 나서서 앞뒤를 살펴보며,

“애야, 범 보면 개로 알겠다. 군기총(軍器銃) 하나만 내어 들

고 가자.”

“무섭거든 가지 마옵시다.”

“애야, 그러하단 말이로다. 네 성정 그러한 줄 몰랐구나. 정 못 갈 터이면 내 업고라도 가마.”

배비장 뒤를 따라 가며 하는 말이,

“기약 둔 사랑 여자 어서 가 반겨보자.”

서쪽 창문으로 돌아들어 동편 소나무 계단에 다다르니, 북쪽 창에 밝게 켜 불 외로운 등은 한 점ियो, 야색은 삼경이라. 높은 담 궁궐 찾아가서 방자 먼저 기어들며,

“취, 나으리 잘못하다가는 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묘리(妙理) 있게 들이미시오.”

배비장이 방자 말을 옹계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미질자, 방자놈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 쥐고 힘껏 잡아당기니, 부른 배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하는지라,

배비장 두 눈을 희게 뜨고 이를 갈며,

“좀 놓아다고!”

[C] 하면서, 죽어도 문자(文字)는 쓰는 것이었다.

“포복불입(飽腹不入)하니 출분이기사(出糞而幾死)로다.\*”

방자 안에서 웃으며 탁 놓으니, 배비장이 곤두박질하여 일어 앉으며 하는 말이,

“매사(每事)가 순리로 아니 되니 대패(大敗)로다. 산모(產母)의 해산법으로 말하여도 아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다 하니, 내 상투를 들이미질 것이니 잘 잡아 다려라.”

방자놈이 배비장 상투를 노평거지 쓴 채 왈각 잡아당기니, 아무리 하여도 나은 줄 모르겠다. 사지부생(死地復生)이라, 원명(元命)이 재천(在天)이로다. 뺨 하고 들어가니 배비장이 아프단 말도 못 하고,

“어허, 아마도 내 등에는 끈질끈자판을 놓았나 보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 습의 : 행동을 미리 연습함.

\* 노평거지 : 노병거지의 잘못.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끈 줄로 엮어서 만든 병거지.

\* 포복불입하니 출분이기사로다 : 배가 불러 들어갈 수 없으니 똥이 나와 죽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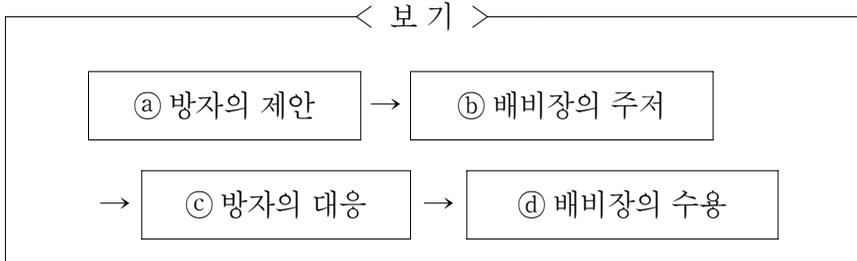
3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 ③ 행동의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④ 기지와 재치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을 비웃고 있다.
- ⑤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32. ‘배비장’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 ②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 ③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
- ④ 여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⑤ 양반의 체통보다는 욕망을 따르고 있다.

33. [A]와 [B]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화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양반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② ㉡는 ㉠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망설이는 것이다.
- ③ ㉢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 ④ ㉣는 ㉢의 인물이 예상한 결과이다.
- ⑤ ㉣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이다.

34. [C]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삼모사(朝三暮四)                      ② 허장성세(虛張聲勢)
-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④ 호가호위(狐假虎威)
- ⑤ 아전인수(我田引水)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7년 12월에 만들어진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 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 가지 체제를 도입했다. 공동 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이 그것이며,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 간 온실 가스 거래 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즉,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감축된 온실 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의무 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 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 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 체제를 통해 의무 감축국은 온실 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체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지만 그 이전에도 온실 가스를 감축하면 감축량이 소급 인정되므로 이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이 의무 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한 경우 초과분을 다른 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고,

반대로 의무 달성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온실 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제도로 각국은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 배출권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또 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일부 국가는 교토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자 비준국들은 청정 개발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2003년 ㉠ 네덜란드가 브라질에서 쓰레기 매립지 메탄가스를 활용한 청정 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불과 2년여 만에 전 세계적으로 126개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들 사업이 2012년까지 감축할 온실 가스 총량은 1억 5,153톤이나 된다.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도 2007년 한 해 30조 원이 넘었다. 이제 온실 가스 감축 문제는 환경 보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온실 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탄소 경제’, ‘탄소 시장’, ‘탄소 펀드’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경제 분야로 변신하고 있다.

35.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온실 가스 감축 비용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르다.
- ② 교토의정서의 주된 목적은 국가 간 경제 교류 확대이다.
- ③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온실 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 ④ 교토메커니즘은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 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 가스 감축량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36. 위 글을 읽고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교토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교토메커니즘을 통한 실적과 가시적인 경제 효과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

㉢.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기후 변화 방지 대책을 너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감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7. [A]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브라질은 네덜란드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겠군.
- ② 브라질은 메탄가스 활용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겠군.
- ③ 브라질은 온실 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나라이겠군.
- ④ 쓰레기 매립지의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사업은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이겠군.
- ⑤ 네덜란드는 온실 가스 감축량을 얻기 위해 메탄가스 활용 사업을 벌였겠군.

(나)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新葛濁酒如漚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大碗麥飯高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飯罷取枷登場立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雙肩漆澤翻日赤
응혜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呼邪作聲舉趾齊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須臾麥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雜歌互答聲轉高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但見屋角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觀其氣色樂莫樂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了不以心爲形役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樂園樂郊不遠有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何苦去作風塵客

- 정약용, 「보리타작」 -

(다)

담양에는 대나무 숲이 많다. 대숲은 들판 여기저기 들어서 있다. 집 한 채를 품고 있는 숲도 있고 마을을 품고 있는 숲도 있다. 멀리서 보면 담양의 대숲은 들판에 흩어진 섬과 같다. 봄의 대숲은 연두색이다.

대숲은 자연림이지만 활엽수림처럼 자유의 산만함이 없다. 대숲은 가지런하고 단정하다. 봄의 대숲은 자작나무숲이나 오리나무숲처럼 생명의 기쁨으로 자지러지지 않고, 여름의 대숲은 다른 활엽수림처럼 비린내 나는 습기를 내뿜지 않는다. 대숲은 늘 스스로 서늘하고, 잘 말라서 질퍽거리지 않는다. 대숲은 늘 꿈속처럼 어둑어둑하다. 이것이 몽밀(蒙密)이다. 대나무로는 무기도 만들고 악기도 만든다. 죽창과 피리가 모두 대나무다. 대나무로는 연장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사군자도 친다. 세상을 깨부수고 바꾸려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와서 무기를 구했고, 세상을 버리고 숨으려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돌아와 누웠다. 그래서 대나무 숲은 세상으로 나가는 전진기지이며 세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후방의 쓸쓸한 낙원이다. 대나무 숲은 전투적 이념의 절정이며 은둔의 맨 뒷전인 것이다.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대나무는 죽순이 나와서 50일 안에 다 자라버린다. 더 이상은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고, 다만 단단해진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 왕대는 8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운다. 눈이 내리듯이 흰 꽃이 핀다. 꽃이 피고 나면 대나무는 모조리 죽는다. 꽃 속으로 모든 힘이 다 들어가서 대나무는 더 살 수가 없다. 대꽃은 흥흥하다. 담양의 노인들은 “대꽃이 피면 전쟁이 난다.”고 말한다. 대나무 숲은 삶의 모든 국면을 다 끌어안고서도, 그 성질은 차고 단단하다. 미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번뇌를 죽순이 다스린다고 옛 의학 서적에는 적혀 있다. 그 임상 효과가 어찌되었건 간에, 대숲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만하다. 대나무 숲의 배후는 복합적이다. 무기와 악기, 싸움과 안식이 모두 이 숲 속에 있다. 담양 들판에서는 이 숲이 사람의 마을들을 품고 있다.

- 김훈, 「자전거 여행」 중 -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아녜더니  
 눈 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 암향(暗香)\*조차 부동(浮動)\*터라

㉢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바람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侵擄)한다  
 아무리 얼우려한들 ㉣ 불뜻이야 앗을소나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건곤(乾坤)이 ㉤ 눈이거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패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 안민영, 「매화사」 -

\* 암향 : 그윽히 풍겨오는 향기.

\* 부동 : 떠서 움직임.

\* 빙자옥질 :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

\* 아치고절 : 우아하고 높은 절개.



현대 국어에서 ‘뚫다, 뚫다’와 같은 말을 활용하면, 즉 어간에 ‘-어/아’를 붙이면 각각 ‘도와, 더워’와 같이 된다. 한국어로 강아지 짖는 소리는 ‘멍멍’인데 이 말은 ‘멍+멍’이다. 영어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bow’를 두 번 써서 나타낸다. 그렇다면 ‘bowbow’가 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bowwow’이다. ‘b’가 우리말의 ‘우’와 비슷한 ‘w’로 바뀌었다. 영어에서 이가 흔들리는 것을 ‘wobble’과 같은 말로 표현하는데, 젖니가 빠질 때의 영어권 아이들은 그것을 종종 ‘bobble’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는 ‘w’가 ‘b’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예는 한국어와 영어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입술소리가 ‘ㄷ’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자음이 ‘ㄷ’와 같은 구성 원소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ㅂ’과 같은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뀐다면 그것은 ‘우’[w]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말에 구개음화라는 것이 있다. ‘굳이, 같이’ 등과 같은 말의 발음이 [ㄷ]이나 [ㄷ]으로 발음되지 않고 [지]이나 [치]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런 구개음화는 항상 ‘ㅣ’ 모음이나 ‘ㅑ’나 ‘ㅓ’와 같이 ‘ㅣ’ 모음이 포함된 ‘ㅣ’ 계열 이중 모음이 있을 때 ㉠ 일어난다. 즉, ‘굳어, 같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ㄷ]과 [ㄷ]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strike’와 같은 외래어나 외국어를 들을 때, ‘s’와 ‘t’ 사이, ‘t’와 ‘r’ 사이, 그리고 마지막 ‘k’ 다음에 마치 ‘-’가 있는 것처럼 들리거나, 한글로 표기할 때 ‘스트라이크’와 같이 ‘-’를 넣어서 쓴다. 이는 ‘-’ 모음은 음성학적인 면에서 아무런 특징을 가지지 않은 모음이기 때문이다. 즉, ‘-’는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아서 다른 색깔의 소리와 만나게 되면 자신은 사라지고 전적으로 다른 소리의 색깔을 그대로 비춰준다. 이런 이유로 ‘크(다), 뜨(다)’와 같이 ‘-’ 모음으로 끝난 말 다음에 ‘-아서/어서’와 같은 말이 결합하면 ‘커서, 떠서’ 등과 같이 발음된다. 그러나 ‘sponge, lunch’ 등과 같은 경우에는 ‘-’ 모음이 아닌 ‘ㅣ’ 모음을 사용하여 [스펀지], [런치] 등과 같이 발음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개음과 ‘ㅣ’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구개음 안에 ‘ㅣ’라는 구성 원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구개음화의 경우에는 ‘ㄷ, ㅌ’이 ‘ㅣ’ 모음을 받아 들여 ‘지, 치’으로 변하고, 외래어 발음의 경우에는 구개음 안에 들어 있는 ‘ㅣ’가 밖으로 나와 모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계의 소리와 인간의 말소리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음운이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자음과 모음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영어의 음운 현상이 한국어의 음운 규칙 설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인간의 말소리와 자연계의 소리를 분석하여 말소리의 보편적 특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⑤ 국어의 자음과 영어의 모음의 변화 양상이 유사함을 들어 두 언어의 음운 규칙이 유사함을 보여 주고 있다.

44. 위 글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 ‘츄다’가 활용될 때는 ‘츄+어>추워’와 같이, 어간의 자음 ‘ㅂ’이 모음 ‘ㅓ’로 바뀐다.
- ㉡ ‘밭이’가 발음될 때는 ‘ㅣ’ 모음 때문에 ‘ㅌ’이 ‘ㄷ’으로 변하여 [바치]라고 발음된다.
- ㉢ ‘국물’이 [궁물]로 발음되는 것은 앞 음절의 받침 ‘ㄱ’이 뒤 음절의 첫소리 ‘ㄱ’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 ㉣ 우리말 ‘설+달, 술+가락’이 ‘선달, 순가락’으로 바뀌고, 미국 영어에서 ‘water, city’를 [워러], [시리]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ㄷ’과 ‘ㄹ’이 서로 넘나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4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는 음성학적으로 아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 ② ‘모으다’를 활용할 때도 ‘-’가 탈락되는 현상이 생기겠구나.
- ③ 자음이 없이 모음 하나로도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가 있구나.
- ④ 언어의 공통된 특성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구나.
- ⑤ ‘요’도 ‘ㅣ’ 모음을 내포하고 있으니 ‘ㅣ’ 계열 이중 모음이겠구나.

4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녀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 ② 나는 아침 느지감치 일어나 밥 한 술을 떴다.
- ③ 막내아들의 성공으로 집안이 크게 일어났다.
- ④ 그는 열흘 동안이나 몸져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 ⑤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적군에 대항하였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크라테스가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리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것일까?”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영혼이 천상의 이데아계에서 진리를 배웠지만 지상에서 삶을 얻으면서 진리를 망각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진리를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천상에 이데아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우리 현대인에게 소크라테스의 설명은 농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패러독스(paradox)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일까.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패러독스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색을 전개했다. 먼저 하이데거는 후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비판했다. 후설은 세계(대상)의 의미는 주관의 의식 속에 구성된 것이며, 그렇게 해서 부여된 의미는 주관의 의식을 넘어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다. 즉 인간의 의식 속에 이데아적인 영역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주관적 의식 속에 이데아적인 것이 입력되어 있다는 후설의 사상에는 충분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설명은 이데아계가 소크라테스의 천상을 대신해서 의식 안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 자체에 주목했다. 그리고 인간을, 후설의 경우처럼 세계(또는 의미)를 구성하는 순수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지도 만들지도 않은 세계에 자의와 상관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지적했다. 인간은 자의와 상관없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이런 상태를 하이데거는 ㉠ ‘피투성(被投性)’이라 ㉡ 이름 붙였다. 그리고 이 피투성은 인간의 기분, 그 중에서도 불안을 통해 자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의 어느 순간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혹은 ‘머지않아 죽을 나에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와 같은 불안을 내포한 물음은 누구에게나 살며시 다가온다. 그때 우리는 ‘왜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이 이미 이 세상에 던져졌고 여기에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피투성)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 일단 피투성을 자각할 때,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포착해서 재구성하는 시도가 시작된다. 이런 시도는 ㉢ ‘기투(企投)’라고 불린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세계 속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던져진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자각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포착해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한다. 죽음의 자각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던져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피투성에 ㉣ 직면하지만, 역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최초로 존재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처음의 소크라테스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앞서의

패러독스에 대해 하이데거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불안과 죽음의 자각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진리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② 후설은 주관의 의식 속에 구성된 세계의 의미는 개별성을 띤다고 보았다.
- ③ 후설은 인간의 의식 속에 이데아적인 진리의 영역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④ 하이데거는 인간은 일상생활의 어느 순간 불안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자각한다고 보았다.
- 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자각이 인간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고 보았다.

48.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능동적이고 ㉡은 소극적이다.
- ② ㉠은 우연적이고 ㉡은 필연적이다.
- ③ ㉠은 개별적이고 ㉡은 집단적이다.
- ④ ㉠은 숙명적이고 ㉡은 선택적이다.
- ⑤ ㉠은 이기적이고 ㉡은 희생적이다.

49. **진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의 사례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세계가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 ② 이 세계에 어떻게 해서 나는 존재하게 된 것일까?
- ③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가?
- ④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
- 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50. ㉢,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 | ㉢           | ㉣      |
|-------------|--------|
| ① 명명(命名)하였다 | 맞닥뜨리지만 |
| ② 서명(署名)하였다 | 맞물리지만  |
| ③ 지명(指名)하였다 | 맞대지만   |
| ④ 표명(表明)하였다 | 맞닿지만   |
| ⑤ 호명(呼名)하였다 | 맞붙지만   |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